

# 한국의 라틴타입 디자인

## Latin Type Design in Korea

김기창  
Kim Kichang

2016년 이후 한국의 라틴 타입 디자인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0년대, 여러 디자이너가 유럽을 중심으로 글꼴 디자인 관련 유학을 떠났고, 귀국 후 그들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들은 한글뿐만 아니라 라틴 타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국내 글꼴 디자인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중 한국에서 라틴 타입 디자인에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한국의 타입 디자이너를 이야기한다.

### 1. 한국에서의 라틴 타입 디자인 수업

나는 2019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글타이포그래피학교에서 라틴 타입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기초, 심화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5-10명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글꼴 디자이너,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부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라틴 타입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며 대부분 수업에서 글꼴을 완성해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목표보다는 취미 활동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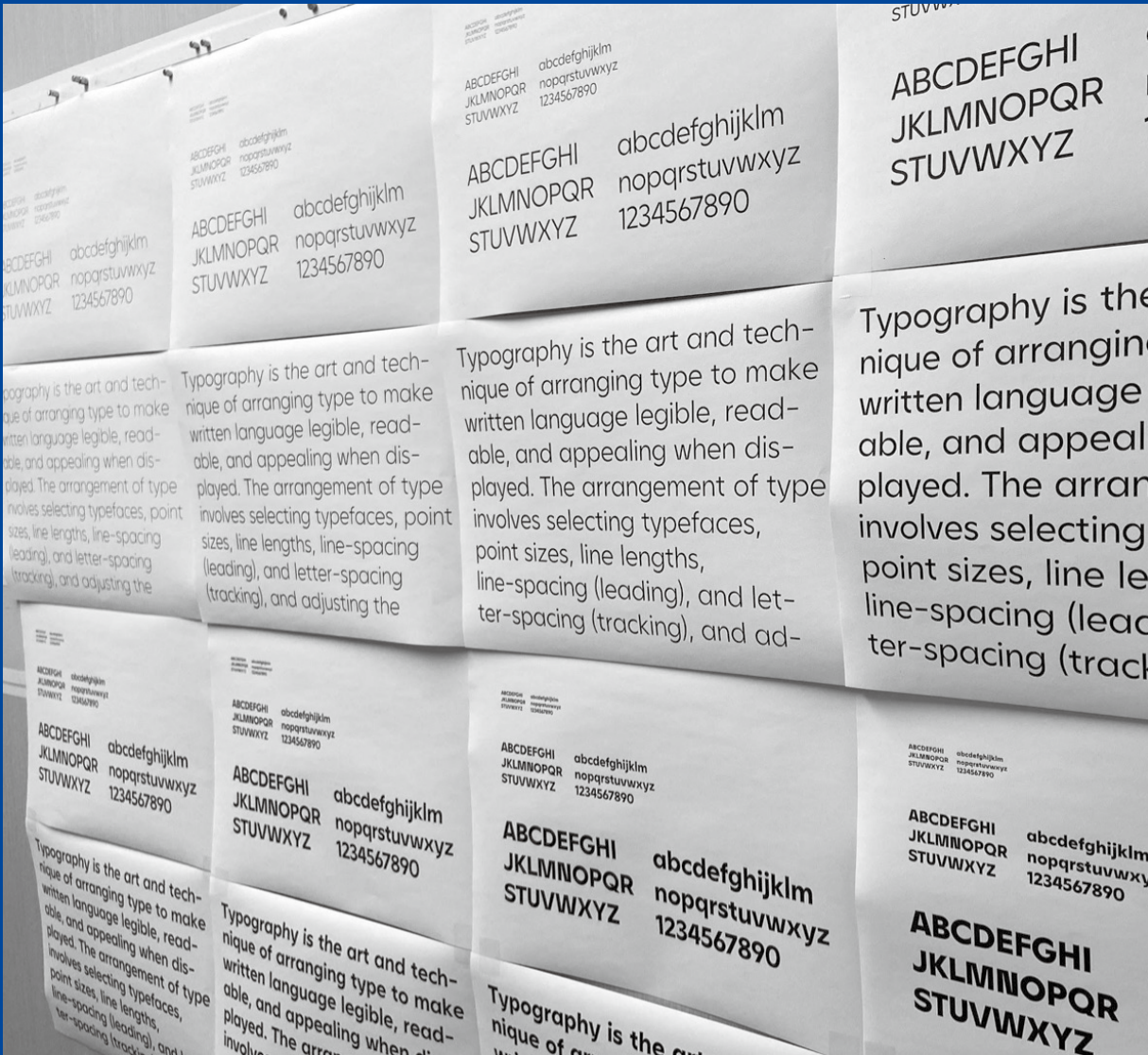
### 2. 유럽의 라틴 타입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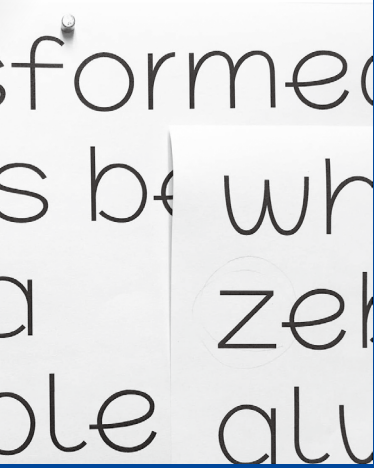
2000년대 초, 유럽에서는 기존 글꼴 판매 회사와는 그 방향성이 다른 새로운 시도가 일어 변화하는 시대는 글꼴을 닫힌 공간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으로 이끌었다. 많은 젊은 타입 디자이너들은 유럽의 여러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작업을 선보였으며, 자연스럽게 그 시기의 유럽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

### 3. 한국의 라틴 타입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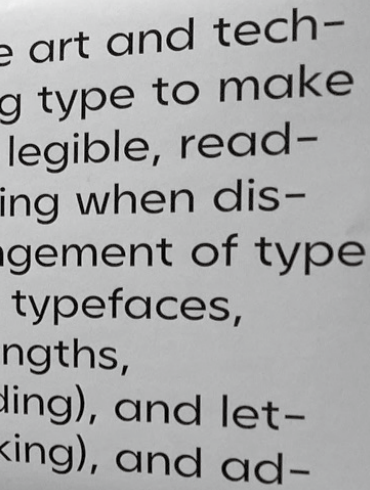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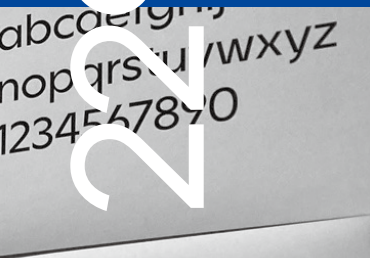
여전히 한국의 라틴 타입 디자이너를 찾기는 힘들다. 이는 해외 사이트에서 손쉽게 글꼴 구입이 가능하고 유럽, 미국 등 현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인 라틴 타입 디자이너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글과 라틴 타입 디자인 모두가 가능한 경우 확장된 작업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글꼴 디자이너 대부분은 국내외에서 한글 디자인을 중심에 두고 라틴 타입 디자인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그럼에도 '라틴 타입 디자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 [그림 4]

rans  
n his  
nto o  
orr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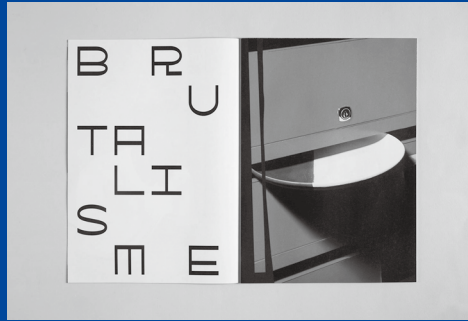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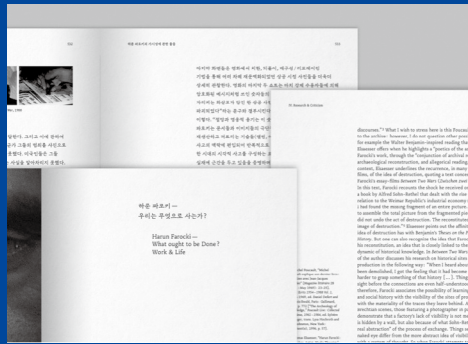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1]



[그림 3]



[그림 4]

[그림 1, 2]

한글타이포그래피 학교, 라틴 타입 수업의 학생 작업

[그림 3]

양희재 디자이너, Fifty 글꼴 예시이미지

[그림 4]

김초롱 디자이너가 라틴타입, 기호, 숫자를 디자인한 산돌정체 예시 이미지